

일본에서의 반 년

계명대학교

시유현

K2690003

일본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은 하루하루가 새롭고, 배움과 성장으로 가득 찬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일본에 도착했을 때는 갑작스럽게 몸이 아파 한동안 힘들고 고단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낯선 타지에서 건강 악화로 어려움을 겪으며 불안함도 컸지만, 주변의 도움과 노력 덕분에 무사히 회복할 수 있었고 지금은 아주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몸을 회복한 후에는 평소 좋아하는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의 다양한 전시를 찾아다니며 일본 문화와 예술을 깊이 있게 경험했습니다. 교실 밖에서 직접 보고 느낀 다양한 문화적 경험은 전공 지식과 어우러져 저의 학문적·문화적 시야를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좋아하는 활동을 즐기며 새로운 환경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과정 자체가 큰 행복이었습니다.

아울러 일상 속 교류에서 느낀 현지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와 친절 또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소소한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했던 경험은 단순히 언어 실력을 늘리는 것을 넘어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넓은 안목을 길러주었습니다.

지난 반년의 생활은 단순한 언어 습득이나 학업을 넘어, 예상치 못한 난관을 스스로 극복하고 새로운 환경에 당당히 적응해 나가는 자립심을 길러준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나 자신을 다스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을 확립했던 이 값진 경험은 앞으로의 삶에 있어 어떠한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단단한 내면의 성장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이처럼 값진 유학 경험을 무사히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은 따뜻한 관심
덕분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몸이 아파 힘들었을 때 도와주신 선생님과 기숙사
관리실 선생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